

고대 중국 유학자 동중서(董仲舒)에게 나타난 예술의 의미

김현중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bonzurm@yahoo.com

The Meaning of Art in Ancient Chinese Confucian Scholar Dong-joong-seo

Hyoungjong Kim

Dept. of Popular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동아시아의 예술을 살펴보면 예(禮)와 문(文)이 예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무용, 음악, 시학, 회화, 디자인(복식) 등으로 동중서는 이 중에서 시와 예악을 가장 강조한다. 시를 정서의 표현으로 보아 “시는 정서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바탕을 기르는데 뛰어나다”라고 했으며 또한 시가 가진 자발적 교화의 기능을 강조하여 “왕이 모범을 밝혀 백성들에게 제시하면 백성들이 찬송하다 시로 만들고 변화하여 풍속이 되며 이로써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되게 된다”라고 하였다. 즉 시는 예술의 특성 중 표현의 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중서가 주장하는 예악(예술)은 시가 최종적으로 귀결하는 것(“예악이 없으면 이루는 바탕이 없어진다.”)으로 첫째 그것은 사람 또는 생물이 이룩해야 할 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참된 존재의 계기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선악의 기준과 연관되며, 셋째 사회적 효용성을 가지며 넷째 이상이 개인의 품성으로 내면화되기 위한 교육에 연관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악의 창작이 국정을 풍자하는 무명의 시인 집단이 아니라 우주 운행에 참여하는 신적 존재와 같은 시인(聖王들)에게 독점되었다. 결국 예악은 사람이 찾아야 할 진리가 구현되어 있고 실현해야 할 윤리가 제시되어 있는 사람의 제도인 셈이다.